

뉴질랜드와 호주의 觀國之光

이 인 배/기획조정팀장

I. 전지역이 골프장처럼 보이는 뉴질랜드

8월 29일 늦은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우리는 다음날 아침에 뉴질랜드 상공을 날고 있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뉴질랜드의 바다는 보석처럼 반짝이는 에머랄드 빛이었고, 육지는 온통 녹색인 골프장¹⁾이 한눈에 들어왔다. 뉴질랜드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라고 하더니 역시 나라 전체가 녹색으로 덮여있구나 하는 생각에 빠지고 있을 때 비행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Auckland)공항에 도착하였다. 공항에서 출국을 하면서 짐검사를 하는데 마약견으로 보이는 견공(犬公)이 종횡무진 가방을 점검하고 다녔다. 나중에 그 견공이 찾아낸 것을 보니까 그것은 마약이 아니고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동·식물류로 자국의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철저한 점검시스템 때문에 구제역이나 광우병이 없는 축산과 농산물의 선진국가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뉴질랜드는 남태평양에 자리잡고 있으며, 호주에서 남동쪽으로 1,600km 떨어져 있다. 국토의 면적은 268,000km²로 영국보다 조금 넓다. 뉴질랜드에 맨 처음 이주하여 정착한 민족은 마오리족들이었으며 이 후에 다른 민족들이 들어왔다. 현재 3백80만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있고, 이 중에서 30%는 오클랜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다. 오클랜드광역시는 4개의 도시(City)와 3개의 지역(District)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서



▶ 전국시도연구원 오클랜드시청 방문기념촬영

오클랜드시가 가장 큰 도시이다. 오클랜드시에는 인종과 환경이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이주해온 이민자들이 어울려 살고 있으며, 이들은 오클랜드 광역시의 문화 및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위치는 마누카우 항구와 와이테이타 항구를 사이에 둔 지협(地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섬들을 가지고 있다. 오클랜드는 기후가 온화하고 주변에 많

1) 뉴질랜드는 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목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볼 경우 목장의 초지가 골프장으로 보인다.

은 해변, 공원, 숲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시민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누리며 깨끗하고 안전하며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오클랜드를 방문하는 해외관광객수는 2001년 6월말 기준으로 연간 123만780십명으로, 뉴질랜드 총방문객의 34%를 차지하는데 1인당 평균체류기간은 8일이며, 2005년에는 연간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오클랜드공항에 도착하는 국적별 방문객수는 호주가 20%, 영국 15%, 미국 12%, 일본 7%, 한국 5% 등의 순으로 한국이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오클랜드 공항 도착 국적별 방문객수

| 구분 | 호주 | 영국 | 미국 | 일본 | 한국 | 독일 | 대만 | 중국 | 캐나다 | 기타 | 총계 |
|-----------|----|----|----|----|----|----|----|----|-----|----|-----|
| 비율 (%) | 20 | 15 | 12 | 7 | 5 | 3 | 3 | 3 | 3 | 27 | 100 |

자료 : 오클랜드 국제공항 2001년 연차보고 자료

뉴질랜드는 한국 남한 면적의 2.7배에 380만이 거주하여 쾌적한 자연 환경속에서 살고 있다. 자연환경의 특성으로 계절은 한국이 겨울이면 여름이고, 남쪽으로 갈수록 추워지며, 집은 북향으로 짓는 등 적도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한국과는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차량통행은 좌측통행이며 사람보다는 차량이 우선하며, 전기스위치도 내려야 불이 켜지기도 한다. 특히, 사회환경으로는 실업수당이 있고, 연금제도가 잘되어 있어 살기 좋은 복지국가로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오클랜드 도착 후 바로 시청을 방문하여 뉴질랜드와 오클랜드에 대한 현황과 자치단체의 운영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시청을 방문하여 시정설명에 대한 장소이용과 시간비용을 지불하는 것의 실례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행정제도, 정책추진 등의 측면에서 우리와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시청 회의를 마치고 시청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벼룩시장에서 판매되는 지역주민들의 각종 생활필수품과 토속음식을 통하여 지역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었다. 시내의 고지대에 위치한 에덴동산에 올라 오클랜드시를 한눈에 바라보며, 오클랜드에 살고있는 마오리족과 도시의 발전에 관련된 역사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저녁에는 대규모 마리너 시설이 있는 요트클럽²⁾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승용차처럼 자가용 요트의 정박장에서 발달된 해양 레저시설을 부러

2) 오클랜드는 애칭이 ‘요트의 도시(City of Sails)’로 오클랜드지역 개인 소유의 요트는 11사람 당 1척 꼴이라고 한다.

위하며 아름다운 오클랜드의 첫날밤을 맞이하였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도시시설을 살펴보기 위하여 호텔 주변을 산책하였다. 호텔의 시내에는 시민공원이 있었는데, 이 시민공원은 공원묘지와 함께 조성되었고, 공원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아침운동을 하고 있었다. 한국의 도시에 있는 공원과 는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묘지가 아름다운 산을 잠식해가고 있는 우리 나라와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이었다.

II.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특이 현상은 관광의 보물

오클랜드를 출발하여 국제적 온천 휴양도시로 유명한 로토루아(Rotorua)를 향하였다. 로토루아로 가는동안 전날 비행기안에서 골프장으로 착각을 했던 목장들이 그림처럼 끝없이 펼쳐지며 연속되었다. 이러한 목장들은 2시간 이상을 자동차로 달렸는데도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계속되는 것을 감상하며, 생태관광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와이토모 동굴(Waitomo Caves)을 방문하였다.

와이토모 동굴은 지난 100여년 동안 세계 각국의 여행객 수백만명이 방문한 세계관광 명소이다. 동굴의 매력은 석회암 동굴 내부를 구경한 다음 보트를 타고 어둠의 개울을 지나면서 동굴 천장에 촘촘히 달라붙은 반딧불이의 영롱한 반짝임을 보는 것이다. 이는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듯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신비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 반딧불이의 빛은 수많은 벌레가 먹이를 유인하기 위하여 뿜어내는 것인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들의 서식·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람객수를 제한하여 입장수입보다는 환경보존에 역점을 두며, 동굴내부에서는 사진촬영과 채집활동 등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다.

계속되는 목장과 어우러진 숲과 가끔씩 형성된 마을들을 지나며 로토로우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뉴질랜드가 1차산업과 3차산업의 비율이 높고, 2차산업이 낮다는 것은 장시간의 이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산과 들은 목장과 과수원들, 뾰뾰하게 들어선 수목들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연출하며, 우리 나라보다 몇 배³⁾로 빠르게 성장하는 식물들은 자연식물원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2차산업이라 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또한, 뉴질랜드는 독립된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곳의 많은 동식물은 쥐라기(Jurassic)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이곳에 서식하고 있는 키위새 등과 같은 동물들과 다양한 식물들이 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3) 우리를 안내한 가이드에 의하면 한국 식물의 성장 속도보다 8배가 빠르다고 설명한다.

세계적인 관광명소로서의 명성을 더욱 높여가며 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다음 목적지로 도착한 로토루아는 북섬 중앙의 타우포호 해안 휴양도시인 타우랑가 중간쯤에 자리잡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온천 휴양지역이다. 이 작은도시는 불과 100년전에도 화산이 폭발한 화산지역으로 인구는 6만5천명이지만 해마다 이곳을 찾는 여행객인 인구의 10배를 넘는다고 한다. 도시에 들어서면서부터 유황냄새가 코 끝에 와 닿았고, 도착 후 바로 여행의 피로를 달래기 위하여 폴리네시아 온천(Polinesian Spa)을 찾았다. 온천은 류머티즘과 근육통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많은 국내외 여행객이 몰리는 곳으로 공동노천탕과 가족탕이 있고 수영과 온천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수영장이 갖추어져 있었다. 여기에서는 동·서양사람들이 함께 온천욕을 하며 서로를 살펴보는 모습이 참으로 이채로웠다. 물론 이곳에는 우리 일행을 제외하고 한국인 방문객도 만날 수 있었고, 일본과 중국인 관광객도 상당히 많이 방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온천탕에서 만난 여러 국가의 방문객들과 나눈 대화에서는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그 자연속에 숨겨져 있는 관광자원들은 하나같이 전세계인들을 유인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온천은 실내의 목욕을 위주로 한 온천시설·공간이 대부분이므로 이곳이 온천의 자연적 환경을 그대로 살려 온천탕과 수영장을 만들어 실외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그 동안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도록 편안한 휴양처를 제공하고 있었다.

III. 지역박물관이 머스터미널과 비지터센터로

로토루아에 도착한 다음 날 이른 새벽 도시를 산책하였다. 이 도시는 우리나라의 소도시 규모와 비슷하기 때문에 오클랜드시와는 다르게 도시의 중심지로 오지 않고 이따이 호텔을 나섰다. 호텔을 나가자마자 거리에서의 첫 만남은 이방인에게 미소와 함께 눈인사를 나눈 친절한 지역주민이었다. 다음으로 이루어진 만남은 도시한복판 도로에서의 물고기였다. 그 물고기는 도로변 하수구 입구에서 조형물로 새겨져 하수구 옆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는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하나의 메시지로서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 물고기 조형물은 도시의 모든 하수구 옆에 새겨져 있었고, 주변에는 아름답게 조성된 도로변 화단과 단층의 도시건축물들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연출하였다.

모든 도로망은 보행자를 중심으로 잘 연계되어 주거공간과 시내의 공원으로 연결되었으며, 시내의 중심지에는 지역주민센터가 있어 지역주민의 지역생활 뿐만 아니라 외국인

을 위한 관광안내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지역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역의 관광안내자료와 지역주민센터의 운영에 대한 자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선진국의 면모를 실감할 수 있었다.



▶ 로토루아 시내에 있는 버스터미널로 시민공원내 박물관을 이미지화하여 건축물을 건립하고, 건물 내부는 비지터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 가번먼트가든내 박물관의 모습



▶ 버스터미널내 비지터센터

로토루아에서 가장 흥미롭게 본 것은 버스터미널이었다.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가이드가 시내도로변에 특이하게 생긴 건축물이 무슨 건물인지 질문을 하였는데 모두가 알아맞추지 못하였다. 건축물이 아름답고 특이해서 도저히 버스터미널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한 탓이었다. 이 버스터미널은 대부분의 여행자가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록 버스 운행이 감소되었지만 버스터미널 기능을 가지면서 외부 방문객들이 관광정보를 구하고, 관광안내를 받을 수 있는 비지터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버스터미널을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고, 버스터미널과 전국으로 연결되는 관광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을 하고 있었다.

이 버스터미널의 건축물은 로토루아의 시민공원으로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는 가번먼트가든(Government Garden)에 박물관의 개념을 연결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지역 비지터 센터로서의 모습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랜드마크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었다.

로토루아는 마오리족의 토속문화를 중심으로 한 공연과 각종 기념품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었고, 양모와 관련된 특산물이 발달되어 지역문화와 특산물을 많이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머드제품이었는데, 화산에서 분출된 머드를 가지고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어 있었다. 이들은 충남 보령의 머드제품과 같이 화장품, 비누 등의 유사한 제품들이 다양하게 판매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제품과 다른 점이 한가지 있었는데 머드를 활용한 파스제품으로, 머드에 약품을 결합하여 통증완화상품을 만든 것으로, 이러한 것은 우리 머드상품도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IV.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도 집 값이 비싼 환경 선진국

우리는 뉴질랜드의 일정을 마치고 호주 시드니를 방문하였다. 시드니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오페라하우스(Opera House)와 하버브리지(Harbour Bridge)로 명성이 자자한 호주 여행의 메카로 늘쭉날쭉한 해안선 안쪽, 파라마타 강(Parramatta River)과 태평양이 만나는 중간 지점에 자리한다.

구불구불 이어진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도시 곳곳에는 크고 작은 공원과 아담한 영국식 주택이 들어서서 아름다운 항구의 풍광을 더해준다. 오페라하우스를 위시한 도심 한복판에는 세계 굴지의 기업명이 내걸린 거대한 빌딩이 뽁뽁이 들어차 호주를 대표하는 관광과 비즈니스의 도시임을 뽐내고 있다. 그러나 겨우 2세기 전까지만 해도 시드니는 미지의 세계에 있는 유형수(流刑囚)의 땅에 지나지 않았다. 현재 세계 3대 미항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시드니의 총인구는 330만명이며, 해마다 인구에 버금가는 여행객이 찾아오고 있다.

호주의 개척을 위하여 시드니의 도시화 작업이 시작된 곳은 바위투성이 황무지였던 록스지구(The Rocks)로 바위를 깎고 돌을 다듬어 마을을 일구어 냈다. 20세기에 접어들 즈음에는 록스지구의 급격한 슬럼화와 전염병·경제공황 등으로 어려운 한 때를 보내기도 했지만 1970년 재개발사업에서 옛 모습을 복원하자는 운동이 일어 현재에 이르러서는 역

사적 건물과 조화된 음식점과 상점이 가득 찬 빅토리아풍의 록스로 재탄생 한 후, 2000년에는 시드니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유명세를 더하고 있다.

우리는 시드니 항만청을 방문하여 재개발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논의된 토론에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는 지역별 특성과 개성을 살려 역사지구와 위락지구를 분리한 토지이용의 접근개념이다. 이의 예로서 100여년 전 옛날의 전통건축물이 남아있는 지역은 그대로 보존하고, 인접한 유헴토지에 위락지구를 만들어 지역 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둘째는 지역주민과 개발자가 함께 합의를 도출하여 개발지구와 보존지구를 구분한 후 효율적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변공간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변 20m내는 보존지구로 정하고, 개발지구는 20m를 후퇴하여 워터프론트(Waterfront)를 조성해 토지와 시설을 관리하여 보존과 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하게 되었다. 셋째는 주민참여를 위한 각종 주민참여방식으로 교과서적 계획보다는 지역주민과 조화에 노력하여 주민참여에 성공을 했다는 것이다. 주민참여를 위하여 현장교육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획초기부터 추진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지역주민 참여가 이루어졌다. 넷째는 공간의 활용에서 집중과 분산을 조화시키면서 개발의 기본철학은 수요자위주, 지역주민참여와 만족도 제고가 되도록 공공·민간기업·계획가·지역주민이 함께 노력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계획초기부터 계획과정과 추진단계에 이르기까지의 통합적 개발모델에 의해 전략을 가지고 꾸준히



▶ 시드니항만청에서의 설명회와 토론회 장면

계획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계획추진을 위한 집행과 관리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시드니 항만개발계획 추진의 시사점은 시드니를 세계적으로 이름난 항만도시로의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우리가 시드니 방문에서 인상이 깊었던 것은 쓰레기매립장을 환경친화적으로 활용하여 올림픽 경기장으로 조성한 것이다. 올림픽경기장은 현재 시민들이 향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편, 환경교육장으로 비지터센터를 만들어 올림픽상품과 환경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도 주위의 쓰레기매립장에는 계속해서 쓰레기를 매립하여, 여기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렇게

환경친화적으로 도시공간을 조성하다보니 바다가 보이는 고도가 높은 지역에는 지하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주변지역에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에도 혐오시설이 입지 한다는 이유에서 집값이 떨어지기보다는 해안경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망이 나쁜 지역보다 비싼 경향을 보이는 환경 선진국의 탐방은 우리의 환경현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주었다.

V. 오페라하우스의 재방문을 기약하며

오페라하우스는 14년의 공사기간으로 완성된 건축미학의 걸작이자 시드니의 얼굴 1호이다. 하얀 조가비를 연상시키는 둥은 오렌지조각을 잘라서 이어놓은 데서 착안해 디자인한 것이라고 한다. 오페라극장과 드라마극장, 연극무대, 보로드워크 스튜디오, 리허설 룸, 레스토랑, 바, 의상실, 휴게실, 도서관, 갤러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날마다 각종 콘서트와 오페라를 공연하며, 오페라하우스 옆에서는 일요일마다 벼룩시장이 열리기도 한다.

이처럼 유명한 오페라하우스를 관람하기 위하여 가는 길목에서 개척초기의 부두의 옛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옛날 우마차 길을 그대로 보존하며 폭이 좁은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고, 마굿간 자리는 관광안내센터로 만들어졌으며, 보세창고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변해 있었다. 호주 최초의 선술집들은 그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채 증·개축이 금지되어 오늘날도 그대로 현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고도 옛 모습 되찾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지역의 현실과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오페라하우스는 호주 총독관저의 입구를 통하여 왕립식물원을 거쳐 내부만 관람하였다. 저녁시간 오페라 공연이 없는 날이라 내부에 들러 음악CD를 오페라하우스 방문기념으로 구매를 하고, 유람선에서 선상오페라 관람으로 만족하였는데, 24시간 대형빌딩이 불을 밝히는 시드니의 아름다운 야경은 선상오페라와 함께 그 동안 장거리 여정에 대한 피로를 잊게 하였다.

귀국을 앞두고 시드니 시내관광을 하였다. 하이드파크(Hidepark)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되어, 마리아 성당과 함께 시드니의 오랜 세월을 대변해 주고 있었다. 시드니타워는 아름다운 시드니의 도시경관을 모두 볼 수 있었으며, 갱파크(Gappark)는 해안에 아름다운 경치를 유감없이 뽐내고 있었다. 이 같은 아름다운 경관을 뒤로한 채 공항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많은 아쉬움을 남게 하였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라 그 동안의 여정이 스크린처럼 스쳐갔다. 그리고, “觀國之光 …”이라는 문구가 불현듯 생각이 났다. 觀光의 어원에서 “한나라를 빛을 본다

는 것은...” “다른 나라의 자연과 문화, 제도를 통하여 자국에 발전의 기회를 찾는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 기회에는 오페라하우스를 방문하여 반드시 오페라를 관람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며, 몇 일간의 일정을 뒤로한 채 한국에서 아침의 밝은 햇살을 그리며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향하였다. iblee@cdl.re.kr